

↑ **강소기업을 키우자** 고수경 김복녀 전통식품 대표

전통 지키고 소비는 넓히고 담양 창평 약과 새로운 변신

MZ세대 중심 가치소비 확산... 지역성·장인 기술 주목
40년 이어온 타래약과 기반 제품 다변화로 소비층 확대
우리밀·개별포장 등 현대적 상품 전략... 디저트 시장 공략



최근 식품 시장에서 전통 간식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찾던 약과와 한과가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일상 속 디저트로 자리 잡으면서 전통식품 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단순히 맛과 가격만을 고려하던 소비에서 벗어나 생산 지역과 제조 과정, 원재료의 가치, 제품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소비하는 '가치소비'가 확산되면서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담은 식품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익숙한 전통 먹거리에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리한 상품 구성을 더하는 '뉴트로(Newtro)' 열풍도 전통식품 시장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의 맛과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들이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면서 약과와 한과 역시 새로운 디저트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역 특산물 역시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지역 문화와 관광 자원을 알리는 로컬 브랜드로 성장하는 추세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전남광주 지역 전통식품



'김복녀 약과'는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손맛과 전통 제조 방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김복녀씨와 고수경 대표가 손수 약과를 만들고 있다.

기업 '김복녀 전통식품' (대표 고수경)이 담양 창평 약과의 전통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소비 시장에 대응하며 주목받고 있다.

김복녀 전통식품은 담양군 창평면을 기반으로 40여년간 전통 약과 제조 방식을 이어온 기업이다. 창평은 예로부터 타래약과로 유명한 지역으로, 독특한 제조 방식과 깊은 풍미를 가진 전통 약과 문화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김복녀 전통식품은 이러한 지역적 특색을 바탕으로 '김복녀

약과'를 선보이며 담양 창평을 대표하는 전통식품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대표 제품인 '김복녀 약과'는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손맛과 전통 제조 방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반죽부터 성형, 조청을 입히는 과정까지 정성을 들이는 방식으로 약과 특유의 쫄쫄한 식감과 깊은 풍미를 살린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소비자들은 제품의 맛뿐 아니라 생산자의 철학과 지역의 이야기가 담긴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담양 창평이라는 지역성과 40년 이상 이어온 제조 노하우는 김복녀 약과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장 변화에 맞춘 제품 다양화도 이어지고 있다. 김복녀 약과 세트는 1호·3호·4호·5호 등 다양한 구성으로 운영되며, 최대 2400g 대용량 제품부터 소용량 제품까지 소비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명절 선물 시장뿐 아니라 답례품, 기업 선물, 가족 간식 등 다양한 소비 수요를 겨냥해 제품 구성

을 세분화하면서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변화하는 선물 문화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과거 명절 선물은 대용량 포장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실용성과 활용도를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소포장·개별포장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김복녀 전통식품은 이 같은 소비 흐름에 맞춰 휴대성과 보관 편의성을 강화한 제품 개발을 추진하며 전통 약과의 소비 영역 확대에 나서고 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선보인 '우리밀 약과' 역시 대표적인 제품 라인업이다.

국내산 우리밀을 활용한 우리밀 약과는 원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제품이다.

전통 약과의 맛은 유지하면서도 건강한 이미지를 더해 차별화를 꾀했다.

대용량 제품부터 미니 사이즈까지 다양한 규격으로 출시해 가족용·선물용·간식용 등 용도별 선택 폭을 넓혔으며, 다양한 연령층이 부담 없이 즐

길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에는 전통 약과의 일상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 약과는 명절 중심의 한정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커피와 함께 즐기는 디저트나 간편 간식으로 소비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젊은 소비층 사이에서도 전통 먹거리를 새롭게 해석한 디저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카페와 온라인몰 등을 통한 약과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김복녀 전통식품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개별포장 봉지 약과 등 휴대성과 편의성을 높인 제품을 개발하며 젊은 소비층 확보와 새로운 판로 확대에 나서고 있다.

온라인 유통 확대 역시 전통식품 브랜드 성장의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과거 지역 내 판매 중심이었던 전통식품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역 관광 콘텐츠와 결합하면서 전국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지역 생산자가 직접 만든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규모 전통식품 기업도 차별화된 브랜드와 스토리를 갖춘다면 전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통과 현대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김복녀 약과는 변화하는 식품 소비 흐름 속에서 지역 특산물이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복녀 전통식품은 앞으로 담양 창평이라는 지역 자산과 40년 이상 이어온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고수경 김복녀 전통식품 대표는 "전통 방식이 가진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해 담양 창평의 약과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 대표 전통식품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현대차·기아, 칠레 '한국의 거리'에 순찰차 기증

아이오닉 5·EV5 각 1대, 야간 순찰·안전한 생활 기여

현대차와 기아가 칠레 한인회에 순찰용 전기차 2대를 기증한다.

현대차와 기아는 칠레 '한국의 거리' 일대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현대차는 아이오닉 5, 기아는 EV5를 한인회에 기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 위치한 '한국의 거리'는 한국 식당 및 상점이 밀집해 있어 한류의 인기를 타고 주말이면 많은 현지인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교민 사회의 노력으로 7월 14일 거리의 명칭이 '한국의 거리'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더욱 많은 방문객이 이

곳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칠레 한인회는 교민사회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민간 경비업체를 통해 '한국의 거리'의 야간 순찰을 운영해 왔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한인회에서 야간 순찰에 필요한 자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지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순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차량을 기증하기로 했다.

이번 순찰용 전기차 기증은 단순한 차량 지원을 넘어 한국 기업이 현지 한인사회의 실질적인 어려움 해결에 힘을 보탬으로써 모국 기업과 재외동포

사회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활동을 뒷받침한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유지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차를 순찰에 활용해 야간 치안 공백을 줄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지역사회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칠레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현지 고객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010년 칠레에서 리히터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하자 피해 복구,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성금 20만 달러를 지원했다. 현대모비스도 지진 피해 차량을 대상으로 순회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품 가격을 할인하는 등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도왔다.



현대차와 기아는 칠레 '한국의 거리' 일대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현대차는 아이오닉 5, 기아는 EV5를 한인회에 기증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발파라이소 지역에서 환경 개선과 아동 교육을 지원하는 활동을 진행했으며, 중형 트럭 마티티 2대를 재활용품 수거 차량으로 개조해 지방정부에 기증했다.

기아는 2023년 산티아고 도심의 노후 공원과 북

지시설을 친환경 공간으로 재정비했다. 전기차 충전기를 비롯해 테니스 코트와 미니 골프장,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야외 벤치, 태양광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